

☞ > 뉴스 > 뉴스 > 물류&교통

철도공단 충청본부, 장항선 폐선부지 태양광발전+자전거도로 복합활용...전국 최초 사례 '눈길'

국유재산 가치 극대화·주민 편의 제공 등 '일석이조' 효과 기대

2017년 07월 04일 () 10:16:18

김주영 기자 ✉ kzy@ikld.kr



▲ 태양광발전시설 및 자전거 도로 조감도.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철도 폐선부지 상하공간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알찬' 사례가 충남 아산에서 처음으로 등장한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본부장 이동렬)는 장항선 개량사업으로 발생한 아산구간 폐선부지에 올 12월부터 상부공간에는 태양광발전시설을, 하부공간에는 자전거도로를 각각 설치한다고 4일 밝혔다. 대상 구간은 충남 아산 방축동~선장역~(구)도고온천역~봉농리간 14.7km 구간이다.

철도공단에 따르면, 아산시 폐선구간은 선형부지가 폭 6~10m로 좁아 활용도가 떨어져 장기간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철도공단은 아산시·태양광사업자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신재생에너지 터전과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방안을 마련해 복합 활용사업을 추진하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

철도공단 충청본부는 현재 태양광발전시설 개발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곳에 시간

당 9.4mW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되면 3,200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하게 된다.

아울러 철도공단 충청본부는 아산시 폐선구간 중 시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구)도고온천역~선장역 왕복 4.8km구간에 레일바이크를, (구)학성역 인근 0.3km에 오토캠핑장을 사용허가도 완료했다.

태양광발전시설 및 자전거도로 조성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기대돼 지역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철도공단 이동렬 충남본부장은 “아산시 지역에 친환경 전기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고, 연 334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국유재산 가치를 높임과 동시에 지역주민들의 생활편익 제공에 앞장서는 공공기관으로써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폐선부지 상하공간을 복합 활용하는 사례는 전국 최초이며, 철도공단 충청본부는 이 사업을 통해 연간 2억 4,000만 원의 국유재산 사용료 수익 창출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 국토일보(<http://www.ikld.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인쇄하기  창달기


[인쇄하기](#) [창닫기](#)
[홈](#) > [뉴스](#) > [대전·세종](#) > [대전](#)

장항선 폐철도 부지, 상부는 태양광시설 하부는 자전거도로로

2017년 07월 05일 (수) 09:56:34

이한영 기자 hy7337@hanmail.net

[대전=이한영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는 장항선 개량사업으로 발생한 아산구간 폐선부지(방축동~선장역~(구)도고온천역~봉농리) 14.7km가 연말부터 상부는 태양광발전시설로, 하부는 자전거도로로 탈바꿈한다.

아산시 폐선구간은 선형부지에 폭이 6~10m로 좁아 활용도가 낮아 장기간 활용 방안을 찾지 못했으나, 아산시·태양광 사업자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터전과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태양광발전시설 개발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며, 9.4MW/H의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되면 3200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하게 된다.

특히 9.4MW/H의 태양광발전 시설은 온실가스 5500톤 감축과 20년생 소나무 200만 그루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다.

© 충청일보(<http://www.ccdail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인쇄하기](#) [창닫기](#)

유휴 국유재산 활용 사업 '누이 좋고 매부 좋네'

국유지, 철도 확장 등 영향... 작년 전국토의 20% 달해

입력 2017-09-18 17:52 수정 2017-09-18 22:11

유휴국유재산을 활용해 수익사업을 벌이는 지자체와 공기업이 늘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18일 기획재정부와 각 지자체 등에 따르면 정부가 보유한 땅과 건물 등 국유재산이 지난해 10월 1000조원을 넘어섰다. 도심 학교의 잇단 폐교와 도로, 철로의 확장 등으로 늘어난 국유지는 전 국토의 20%에 달하고 있다.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려는 움직임 중 대표적인 건 열차가 다니지 않는 기차길과 쓸모가 없게 된 터널을 자산으로 임대사업을 하는 것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는 장항선 개량사업에 따른 방축동~옛 도고온천역~봉농리 아산구간 폐선부지 14.7km에서 내년부터 연간 2억4000만원의 사용료 수익을 올리게 됐다고 최근 밝혔다. 충청본부는 연말까지 해당 폐선구간 상부에 3200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광발전시설을, 하부에는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공사를 벌이고 있다.

당초 선형부지인 아산구간은 폐선이 된 철로의 폭이 6~7m로 좁아 그동안 적절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충청본부가 아산시, 태양광 민간사업자와 머리를 맞댄 결과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동시에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는 공간으로 탈바꿈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게 됐다.

전남 보성군은 1990년대부터 제암산 일대 국유지 160ha를 산림청에서 단계적으로 임대해 제암산자연휴양림으로 조성했다. 휴양림은 올 상반기 입장객만 10만명을 넘어서는 등 전국 각지에서 '힐링'과 휴양을 원하는 관광객들의 명소가 됐다. 군은 제암산휴양림이 관광명소로 부상하자 활용방안이 뵈족하지 않은 문덕면 용암리 군유지 240ha와 제암산 일대 국유지를 교환하는 방안을 수년 전부터 추진해 우여곡절 끝에 지난달 성사시켰다.

군은 사계절 여행지로 떠오른 제암산자연휴양림에 펜션형 숲속의 집 24동과 연립형 숲속휴양관 12실, 제암휴양관 11실 등 총 47실의 숙박시설과 쥘라인 등 체험시설을 갖춰 관광수익을 올리고 있다. 문금주 전남도 기획실장은 "중앙과 지방 정부가 협력체계를 강화해 유휴 국·공유지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며 "체계적 활용방안을 찾기 위한 통합 데이터 구축과 제도화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전국종합 swjang@kmib.co.kr

COPYRIGHT BY KUKMINILBO ALL RIGHTS RESERVED.

[인쇄하기](#) [창닫기](#)[홈](#) > [뉴스](#) > [뉴스](#) > [물류&교통](#)

철도공단 충청본부, 유휴부지 임대설명회 28일 개최

경부고속선·호남선 등 15개소 12만 344㎡ 규모…재정 수입 증대 효과 기대

2017년 09월 26일 () 18:01:28

김주영 기자 kzy@ikld.kr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가 로변 및 도심지역 부지를 포함해 활용 가치가 높은 충청권역 내 철도 유휴부지를 민간에게 임대한다.

철도공단 충청본부는 관내 입지여건이 양호한 철도 유휴부지에 대한 임대 사업자 공모를 위한 설명회를 오는 28일 10시 공단 본사 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모하는 철도 유휴부지는 총 15개소, 12만 344㎡ 규모다.

해당 유휴부지는 경부고속선, 호남선, 장항선 인근에 소재했다. 또한 선로변 및 도심지역 부지를 포함하고 있어 활용가치가 높다는 평가다.

특히 주차장·물치장·예술문화공간·태양광 발전 등의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 임대 수요자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철도공단은 예상했다.

충청본부는 이번 설명회에 지방자치단체와 물류·화훼협회 등 다양한 기관의 참여를 유도했다. 여기에 태양광발전사업 유치에도 적극 나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에도 부응할 방침이다.

실제로 공단 충청본부는 최근 철도부지 최초로 아산시 폐선 부지에 상부는 태양광발전시설을, 하부는 자전거도로를 복합 활용해 수익 증대는 물론 여가활용 공간 제공과 일자리 창출 등 공익 실현에 앞장선 바 있다.

철도공단 이동렬 본부장은 “앞으로도 재정 수입 증대와 국유재산을 활용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설명회에 대한 세부내용은 공단 홈페이지나 충청본부 재산지원처 재산부로 문의하면 된다.

© 국토일보(<http://www.ikld.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인쇄하기](#) [창닫기](#)